

# 전국 첫 기부콜센터 운영

### 익산시, 기부 안내서비스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전화 한 통으로 쉽게 기부활동 동참 기부문화 확산

익산시가 건강한 기부문화를 형성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 기관을 중심으로 경제계까지 동참에 나서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익산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정현을 시장과 박원수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김근섭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이사장 김재속 익산시청장 학재재단 이사장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코로나19 위기를 나눔문화 형성을 통해 극복하고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기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익산시는 시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기부 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이 콜센터(1577-0072)에 전화하면 기부단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단체가 직접 기부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기부 절차를 진행한다.

지정된 기부단체는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익산시청장학재단 등 3곳이다. 쉽고 즐거운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열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부자에 대해 익산시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거나 기부자 명의의 숲을 조성하는 등 각종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기부자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종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축된 정보는 연도별 현황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향후 시민대상과 모범시민상, 유공시민 등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익산시는 기부참여자에 대해 각 부서·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관리

해 왔으며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기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은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문화가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동안 부서와 기관별로 운영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종합적인 정보를 구축하고 기부콜센터 운영과 기부문화 체계를 확립해서 지역 전반에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부문화 도시로서 활약 중인 익산시는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2억4천여만원의 성금과 물품이 기부됐으며 자원봉사단체와 개인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마스크와 식재료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잇따라 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난 24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원수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김근섭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이사장 김재속 익산시청장학재단 이사장 협약을 맺고 시민들이 쉽게 기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군산시는 봄철을 맞아 '은파관광지 테마별 녹지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은파호수공원 유휴공간에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다.

##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봄맞이 새단장

### 유휴공간에 초화류 식재

군산시는 봄철을 맞아 '은파관광지 테마별 녹지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은파호수공원 유휴공간에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파관광지 테마별 녹지공간 조성'은 군산의 대표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에 계절별 구간별로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힐링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주요 산책로에 수목을 보식해 보행자를 위한 그늘 공간을 조성하고, 계절에 따른 대표적인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한다.

봄에는 벚꽃과 개나리, 여름에는 연

꽃, 가을은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겨울에는 눈꽃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4계절 테마를 완성한다.

특히 연초부터 사계절 식재를 계획하여 선진지 견학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맥문동, 사철패랭이, 꽃잔디, 금계국, 발개미취, 창포, 황금달맞이, 옥잠화, 꽃무릇 등을 위치를 정해 식재할 예정이다.

최성근 문화관광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은파공원에 활짝 핀 꽃들을 보며 조금이나마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길 바란다"며 "4계절 테마 조성으로 은파호수공원 이용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 민주당 지역위 공조체계 강화

### 당 · 정간담회 갖고 예산 확보 · 현안사업 추진 한뜻

군산시와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가 지난 24일 당 · 정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신영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한 군산시 도의원 과 시의원 당 관계자들과 군산시장, 부시장 국 · 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특히 신영대 당선인을 중심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중 앙 공공기관 군산유치 ▲전기차클러

스터 구축 및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생태계 다변화 ▲새만금 고군산 근대역사지구를 잇는 국제관광거점 사업 추진 ▲군산 수산업 제2부흥시대 선도 등 5가지 주요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당정 공조 전략에 대해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어서 군산시 국소장들이 2021년도 군산시 중점 국가예산 신규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에 설명하고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기공 클러

스터 조성사업 (450억) ▲조선 해양 설치 · 운송 인프라 구축사업(250억)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60억) ▲군산 상생형 일자리 창업모델 혁신 제조 창업팩토리 구축사업(30억) ▲배달의명수 온라인 종합 배달앱 구축(19억) ▲월명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0억) ▲군산푸드생활문화나눔터(20억) 등에 대해 향후 중앙부처 및 기재부 대응에 정치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사업(1조 2953억) 등 대형 국책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김재훈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희망 릴레이 동참

### 윤권하 원광대 병원장에 이어

정현을 익산시장이 도내 기관 단체 장들로 이어지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희망 릴레이 캠페인은 온라인 개학으로 캠퍼스가 텅빈 도내 대학에서 출발하여 윤권하 원광대병원장으로 이어졌고,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살리기의 최전선에서 맹활약중인 정현을 익산시장이 그 바톤을 이어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팬데믹 공포로 휘몰아치는 가운데 익산시는 철저한 감염 유입 차단 등 최대 규모의 방역으로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외하고 24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현을 익산시장은 긴장감을 잃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

으로 실천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강조하고 관내 기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하며 희망 릴레이에 동참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하나로 결집된 익산 시민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코로나19! 위대한 익산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익산경제!"를 손글씨로 전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염원했다.

한편 정현을 익산시장은 다음 희망 릴레이에 참여자로 임성재 익산경찰서장과 김천기 익산 세무서장을 지목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지역 소식통

### 5800여명 시민에 일자리

익산시는 1분기 5800여명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익산시는 이날 1분기 일자리 추진실적 보고회를 갖고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시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일자리 관련 33개 부서의 123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진행, 일자리 창출 목표 1만6332명 대비 35.8%(인) 5845명에게 일자리가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지역공공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의 정상 추진에 주력해 왔다.

또 산업단지 기업유치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사업 등에서도 집중해 왔다.

아울러 고용률 제고를 위한 구직자 지원 강화 및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고용환경 개선,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육성,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방안 등을 고민해 왔다. /익산=장양원 기자

###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익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를 통한 시민 건강권 확보에 나선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구체화해 시민 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시의 노력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9 $\mu\text{g}/\text{m}^3$  지난해 같은 기간 44 $\mu\text{g}/\text{m}^3$ 보다 15 $\mu\text{g}/\text{m}^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 $\mu\text{g}/\text{m}^3$ 까지 낮추기 위해 저감 종합대책과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가 하반기 건립되면 기상, 지형 특성, 발생 원인을 깊이 있게 연구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감소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감축 정책을 병행해 365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과 대기배출사업장 528곳을 대상으로 전북도, 시·군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